

노랑 '흥행 가도' 숨고르기



'노랑: 죽음의 바다'는 첨단 촬영 시스템을 도입해 실감나는 해전을 연출했다.

'한산'·'명량' 이어 이순신 시리즈 완결판...관객 400만 돌파 해상 전투신 감상의 묘미...카리스마·인간미 등 다면적 조명

경상남도 남해현 노랑해협... 아득한 망망 대해 저편에서 환한 불꽃 하나가 물살에 떠 밀려온다.

정체 모를 빛을 보면서 불안해 하는 왜장 모리야츠가 스크린에 비춰지자 관객들은 숨을 죽였다. 미동조차 없는 바다 위에는 오직 정중동의 불꽃 하나뿐, 작은 불씨는 흔들리는 촛불 같던 조선의 명운과 겹쳐 보였다.

이윽고 불길의 정체가 조선이 보낸 '벗짚을 실은 배'였다는 것을 알게 되자 왜군들은 아연실색한다. 전운을 느낄 새도 없이 쏟아지는 조선군의 포격, 잔잔한 바다에는 파란이 일고 왜군들은 그대로 수몰당했다.

1598년 정유재란 당시 노랑 앞바다에서 펼쳐진 '노랑해전'을 영화로 실경하는 순간이었다.

'한산', '명량'에 이어 김한민 감독의 이순신 3부작에 종지부를 찍는 '노랑'이 최근 400만 관객을 돌파, 한국 영화의 저력을 보여주고 있다.

1편 '명량'에서 최민식이 이순신 역을 맡아 웅망한 용장(勇將)을, 이어 '한산'에서 박해일이 총명한 지장(智將)의 모습을 보여줬다. 이번 '노랑'에서 이순신의 페르소나는 어떤 모습일까.

3부작 시리즈의 엔드게임에서 중역 이순신은 중견 배우 김윤석이 맡았다. 김한민 감독은 그에게 문무와 지체를 겸비한 '현장(賢將)'의 모습을 '주문'했다.

작품은 크게 전반부의 드라마와 후반부 대규모 해상 전투 신으로 나뉘었다. 이 같은 서

사는 전장이 언제 발발할지 모르는 서스펜스를 상영 내내 유지시켰다.

명나라 수군 도독 진린(정재영 분)의 존재감도 컸다. 영화는 후반부의 해전 이전까지 명과 조선이 힘을 합하는 합종연횡(合縱連衡)이 대부분을 차지했고, 이 과정에서 진린은 이순신에게 존경심, 권위 의식을 동시에 내비추는 것으로 명과 조선의 긴장-이완 관계의 양면성을 드러냈다. 이순신에게 굳건한 신의를 보여준 부도독 등자룡(허준호)도 충-의라는 주제와 맞물려 감상의 묘미를 더했다.

조명 연합은 그저 "노랑에서 왜군을 대적하다, 해뜨기 전 관음포로 유인해 섬멸시키는 것"이 전부. 예측 가능한 시나리오였고 전략도 단순명료했지만 조선사의 뒤결을 사수하려는 성웅의 선 굵은 카리스마와 전범은 관객들을 압도하기 충분했다.

이순신을 다면적으로 조명했다는 점도 '노랑'만의 승부처로 보였다. 대쪽 같은 성품으로 대변되던 이순신이 자신을 믿고 따르는 부하 장수 항왜군사 준사에게 진심 어린 조언을 건네는 장면 등은 그의 따뜻한 인간성을 집약해 했다.

"목숨을 걸지 마라. 고향에 가고 싶지 않느냐"라는 대사는 얼핏 보면 무능한 제독 원군의 어록 같지만 영화 속 이순신의 말이다. 그가 자신에게만 믿음을 높인 것만 들어 밀었지만, 충심 어린 부하장수들에게 얼마나 인간적인 면모를 보여줬는지 알 수 있는 대목 중 하나다.

한편 이번 '노랑'이 시리즈를 매조지는 '종결작'이라는 점 이외에도 흥행가도를 달리는 이유는 다양했다. 아군과 적군이 뒤엉켜 싸우는 아바규환의 대규모 야간해전이 그중 하나.

앞선 시리즈들에서 '거북선'의 위용, 이순신의 지덕체를 모두 보여줬던 탓에 이번 작품에서 관객을 '압도'할 만한 무언가가 필요했을 것. 그 방법 중 하나로 김 감독은 최대, 최후의 해전인 '노랑해전' 그 자체에 주목했다. 잠정이 된 듯 한 바다에서 쏟아지는 불화살, 포격소리, 조명 연합군과 왜군들의 수라장은 수려한 영상미, 사운드 등과 어우러져 전쟁의 참상을 보여줬다.

한편 후반부에서는 전략의 묘도 느낄 수 있었다.

순천왜성을 둘러싼 조선의 위장함대가 적을 유인하고 2함대가 일본의 시마즈 함대를 공격하는 장면에서는 거북선이 등장했다. 이때 관음포로 달아나는 왜군에 맞서 조선군이 진린, 등자룡이 있는 명나라 수군과 합류하고 이순신의 1함대까지 출전하는 전략적인 장면은 카타르시스를 주기 충분했다.

말미에서 명, 왜, 조선병사 등을 오가는 롱테이크로 촬영 기법도 압권이었다. 이 같은 촬영 구도는 영화 '킹스맨:퍼스트 에이전트'에서 그 유명한 '우산 전투신'을 비롯해 1993년 임권택 감독의 '서편제' 등에도 활용될 만큼 유서 깊다.

그럼에도 결말은 관객들의 웃음기를 지워냈다. 우리는 그의 죽음을 "저에게 알리지 말아야 했"기 때문. '노랑'의 부제가 '죽음의 바다'라는 점도 무겁게 다가왔는데, 그 죽음이 왜군과 이순신을 동시에 가리키고 있었다는 이유에서다.

/최류빈 기자 rubi@kwangju.co.kr

동심이 타인을 이해하고 사랑하는 법

염창권 광주교대 교수, 이야기 동시 '망치를 이해하는 방식' 펴내

염창권 광주교대 국어교육과 교수는 시와 시조, 동시, 평론 등 경계를 넘나들며 활발한 창작활동을 해왔다. 대학에서 예비 교사를 가르치는 그에게 글쓰기는 중요한 부분이다. 밤박하게 말하면 시와 시조, 동시, 평론 등은 모두 '글쓰기'로 수렴된다.

그가 다양한 방면의 글을 쓰는 이유는 무엇일까. 글을 통해 세상을 바라보고, 학교 현장과 학교 밖의 경계를 자연스럽게 연결하려는 의도 때문인지 모른다.

이번에 엮 시인이 첫 동시집 '망치를 이해하는 방식' (상상인)을 펴냈다.

그는 "스물 둘, 다섯, 여덟 살 초등학교 교사 시절 점심시간이면 아이들과 어울리며 공을 차고 놀았다"며 "그때는 초등학교를 가르치는 일에 열중한다고 했는데 지금 생각해보니 실수투성이였다"고 회고했다.

그리고 오래 세월이 흐르고 대학 교수로 근무하면서는 어린이를 세계와 멀어졌다. 시와 시조 위주로 글을 쓰다 보니 동시를 쓸 기회가 없었다는 후문이다.

엮 시인은 "오래 전 학원이 없는 시골 학교의 오후 교실에서 어린이들은 원고지를 떼우거나 캔트지 위에 물감을 칠했다"며 "이번 작품집은 당시를 떠올리며 동시를 다시 쓰기로 다짐하면서 펴낸 첫 번째 동시집"이라고 밝혔다.

이번 창작집의 특징은 '이야기 동시'라는 데 있다. 현실에서 건져 올린 소재를 모티브로 어린이의 자유로운 상상력에 따라 새롭게 구성된 상상을 시의 형식으로 풀어낸 것이다.

"결론으로 견제구를 날리던/ 잡종견 망치는, 금



세 다 먹고/ 혀를 내밀어 코를 뒤편니 소파 밑으로 들어간다.// 핑퐁! 일주일에 한 번뿐인 배달 시간./ 치킨을 보는 순간/ 나에게도 곁눈이 생긴다./ 누가 몇 개 먹는지 다 세어진다. //이럴 땐./ 저기, 드러누워 날 관찰하는/망치를 조금은 이해할 것 같다"("망치를 이해하는 방식" 중에서)

위 시에는 '망치'라는 개를 이해하고자 하는 화자의 따스한 심성이 담겨 있다. 망치의 본능 기저에는 야생에서의 기억이 드리워져 있다. 조금이라도 빨리 음식을 먹지 않으면 빼앗길지 모른다는 두려움이 잠재돼 있는 것이다.

초등학교인 화자 또한 치킨이 배달되면 "누가 몇 개 먹는지 다 세어진다"고 고백한다. 이렇듯 망치에 대한 이해는 자연스럽게 타자를 이해하는 마음으로 전이된다.

보성 출신 엮 시인은 "어린이는 공부하는 기계가 아닌 이상 친구들과 어울리며 건강하게 자라야 하는데 오늘날은 그렇지 않다"며 "이 동시집에는 어린이들이 건강하게 자라길 소망하는 마음이 투영돼 있다"고 말했다.

한편 엮 시인은 동아일보 신춘문예에 시조, 소년중앙 문학상에 동시, 서울신문 신춘문예에 시가 당선됐다. 지금까지 '오후의 시자', '한밤의 우편취급소', '존재의 기적' 등 다수의 창작집과 평론집을 펴냈다.

/박성현 기자 skypark@

광주영화계 미래를 보다

지역영화비평지 '찐1980' 발간...지역 극장 위기 등 다뤄

지역영화계는 문자 그대로 '위기'다. 2024년 영화진흥위원회의 국내 영화계 예산이 50억 2000만 원에서 24억 원으로 52.2% 삭감되면서 생존의 기로에 놓여 있기 때문. 작년에는 60년 만에 원주아카데미극장이 철거되기도 했다.

(사)광주영화영상인연대(이하 영화연대)가 발행하는 지역영화비평지 '찐1980(사진)'이 광주영화계의 미래를 모색했다.

책에는 '지역-영화-잡지-의 미래'와 '지역극장의 위기와 현황'이라는 주제의 집담회가 수록됐다. '지역-영화-잡지-의 미래'에는 부산영화평론가협회 김민우 간사, 대구 오오극장 발간지 '삼삼오오'의 금동현 편집장, 최근 1호를 펴낸 '설씨233'의 이우민 편집장의 대담이 실려 있다.

'지역극장의 위기와 현황'에서는 지난 10월 광주독립영화관에서 '신경쇠약 직전의 극장들'이라는 주제로 열린 라운드테이블의 후기 등을 만날 수 있다. 지역극장의 위기와 OTT의 상관성 등을 한국예술영화관협회 최낙용 대표가 분석했다.

시네마티뷰 란에서는 광주극장을 영화화한 '버터내고 존재하기'를 윤재경이 리뷰했다. 디포커스



에서는 '동그라미에서 이력까지, 이승준 감독'이라는 주제로 광주독립영화관 정주미 부관장의 비평문이 실렸으며, 독립영화관이 진행했던 '나도 영화 기획자'의 관객 프로그래머 후기도 볼 수 있다.

광주영화영상인연대 이경민 코디네이터는 "이번 호는 존폐의 위협을 겪고 있는 지역영화계에서 영화잡지를 만드는 사람들, 지역 독립예술영화관 관계자 등의 목소리를 담아 의미를 더했으니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라고 말했다.

/최류빈 기자 rubi@kwangju.co.kr

"데크의 세대교체!"

불에 타지 않고 물에 썩지 않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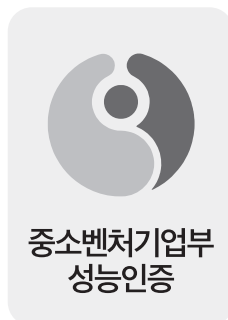
논슬립 디자인데크



항매산 전망대

안성 죽산한미당

부여사비 창작지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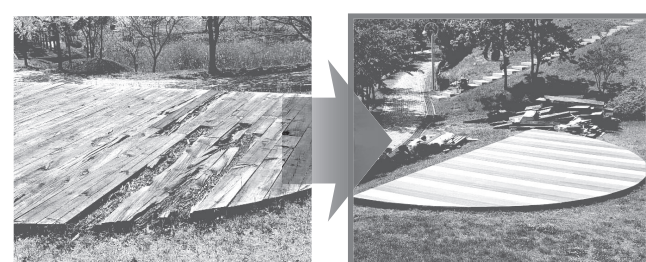
중소벤처기업부
성능인증



품질인증
Q-Mark

기존데크

고강도 디자인데크



습기의 의한 부식, 번거로운 유지관리
기존데크 철거 후 디자인데크 시공
국산 원재료사용으로 경제적이며
재활용이 가능한 친환경 데크!